

남서울 목장 모임 (3월 6일)

Worship 찬양과 경배

찬송 298장 / 속죄하신 구세주를

Words 말씀

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본문 레위기 5:1-13 / 몰라서 지은 죄라도

3월의 주제는 '거룩함과 성결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'입니다(1주 '몰라서 지은 죄라도', 2주 '사명은 거룩하다', 3주 '정결함의 기준', 4주 '모든 곳을 거룩하게').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. 거룩한 삶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,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.

[1]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(1-4절).

1 증인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(1절)?

2 뜻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,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(2, 3절)?

3 경솔한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,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(4절)?

<나눔1> 악의가 없었거나, 잘 몰라서 지은 죄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. 몰라서 지은 죄에 정상참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,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(참조. 눅 12:48).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. 잘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.

[2]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속죄를 해야 합니다(5-13절).

1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(6절)?

2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의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(7절)?

3 만약 비둘기 두 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속죄합니까(11절)?

<나눔2>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. 우리 공동체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까?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.

<나눔3>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지만, 속죄제사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.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줍니다. 나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

Work & Witness 사역나눔

1. 기도제목 작성

개인별 기도제목을 작성하고, 이를 취합하여 목장에서 공유해주시고, 교구 목사님께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양식은 개강세미나에 배부된 안내지 안에 있으며, 교회 홈페이지 목장나눔지 게시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. 구약성경 읽기표 제출

겨울방학 기간 중에 구약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을 교구별로 파악하여 교구 내 목양원 스태프에게 3월 16까지 제출해주시요.